

과학 호기심 채우러 갔다 관리 엉망에 실망감 잔뜩

개관 1년 국립광주과학관 가보니

국립광주과학관이 부실한 콘텐츠에 질 낮은 서비스로 관람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800억원을 들여 '체험형 과학관'을 표방해 개관했음에도 관람객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3일 국립광주과학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관한 뒤 1년이 넘었지만 상설 전시관 등 일부 공간은 여전히 운영할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닫혀 있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언스 스튜디오'와 '사이언스 갤러리' 코너는 애초 시민·학생·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기획됐지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상태다. '빛의 세계관' 내 '빛의 연구'라는 코너도 이름 뿐인 상태로, 현장 직원조차 "그냥 서있는 구조물"이라고 했다.

광주과학관 내 설치된 전시물만 158개.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학관을 찾았다가 체험을 포기한 채 발길을 돌리는 관람객들도 적지 않은 형편이다.

과학관 2층에 '빛의 굴절' 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시물은 지난 9월 고장난 뒤 여지껏 수리하지 못했고 '미소중력' 상태에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전시물은 지난달 중순 고장난 뒤 고쳐지지 않아 관람객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고장난 채 수리를 기다리는 전시물(4개) 뿐 아니라 하루 평균 3~4개의 전시

콘텐츠 부실·서비스 불만 체험전시물 고장 방치 일쑤 타지역 시공사 수리 하세월 작동 방법 설명도 엉터리 단체관람객 식사할 곳 없어

물이 매일 운영되는 과정에서 고장·파손되는 형편이지만 시공업체가 타 지역에 위치한 탓에 제 때 수리가 어렵다는 게 과학관측 설명이다.

지난달 28일 과학관을 찾아 돌아본 500여명의 중·고교생들 사이에서도 "안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라는 불만이 잇따랐다.

광주과학관은 이달 말까지 시공업체 하자보수 유지기간에 맞춰 최종점검을 할 계획이어서 당분간 관람객들은 이들 전시물 체험을 포기한 '반쪽' 관람을 해야 하는 셈이다.

그나마 4D 상영관·전체 투영관·4D 시뮬레이터 등 3개 상영관은 유료(1500원)로 운영되고 정해진 상영 시간 등으로 관람객이용률이 낮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과학관을 찾은 전체 관람객 28만 8382명 중 3개 상영관 관람객은 4만4473명에 불과하다. 결국 대부분의 관람객 동선이 상설 전시관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공업체 보수 기간만을

내세운 과학관의 운영 방침이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찢겨져 나가는가 하면, 작동 방법에 대해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적힌 전시물도 눈에 띄었다. '생활 속 과학관' 코너에 마련된 '롤러코스터'의 경우 핸들을 돌려 공의 위치를 옮겨 체험하라는 안내문과 달리, 핸들 없이 버튼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나마 작동버튼을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 않아 관람객이 "고장났잖아"라며 발끈을 돌리기도 했다. '스노보드'라는 전시물은 과학대추형 행사 때 망가져 접근이 금지된 상태다.

관람객들에 대한 배려도 턱없이 부족해 원성이 높다. 지난해 하루 평균 초·중·고교생 단체관람객 등 입장객만 1000명에 달했지만 변변한 쉼터도 없고, 먹거리도 구입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과학관 내 매점 좌석은 90석에 불과하고 외판 곳에 위치한 간단한 간식거리를 구입할 곳도 마땅치 않다. "비가 오지 않는 게 천만 다행"이라는 푸념도 들린다.

과학관을 찾은 한 교사는 "과학관을 찾은 대부분이 학생 단체 관람객인데 식사공간조차 없다"고 말했다.

국립광주과학관 관계자는 "전시물 시공업체가 서울, 대전에 위치해 수리를 요청해도 3일이 걸리고 해외에서 수입한 부품은 길게는 2달 걸린다"면서 "시공업체 기술을 이전받아 자체 수리할 수 있도록 진행중으로 미운영중인 참여형 전시도 조만간 선보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엠코광주공장 비인간적 행태 너무 심하다”

금속노조 비난…지난달 30대 근로자 자살 관련 대책 촉구

“과도한 업무량과 강압적인 노무관리가 부른 비극입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3일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 엠코) 광주공장의 비인간적인 노무 행태를 비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지난 10월22일 오전 8시50분께 엠코 광주공장 근로자 A(여·31)씨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입사 10년차인 A씨는 2년 전부터 4조 3교대로 포장 업무를 해왔으며 전날 야근을 마치고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A씨가 지난 10개월 동안 연차 휴가와 여름 휴가를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못했으며 지난 8월부터 동료에게 '힘들다'는 하소연을 자주 해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개월 전부터 상급자에게 부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목숨을 끊은 당일

조차 “너만 힘들다, 나도 힘들다”는 상급자의 질타를 들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A씨가 지난해 품질향상 공로사원상까지 받는 등 칭찬을 엠코에 받쳤지만 회사의 보답은 ‘단 하루의 휴가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삶’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엠코는 올해 1월부터 4조3교대 근무를 선순환에서 야간-오후-오전 순서인 역순환으로 바꾸고 적응이 어렵다는 직원들에게는 참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휴가 기간조차 전혀 대체할 인원 없이 노동자의 고통을 끼쳐나 다른 조에서 잔업을 해야 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엠코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강제로 개정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대표가 노조로부터 고소당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근무형태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무조건 적응하라’는 식의 태도는 근로자를 공장의 부품으로 여기는 것과 다를 없다”며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낮추고, 고대근무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예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엠코 광주공장 관계자는 “A씨의 죽음에 대해 회사의 귀책사유가 분명하지 않아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유가족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경조사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 이외의 건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엠코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둔 엠코테크놀로지가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엠코테크놀로지는 한국과 대만,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 공장을 두고 세계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시장에서 2위를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가족 문패 직접 만들어요

3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행복한 가족 문패 만들기 체험에 참가한 가족들이 이색문패를 만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성 요양병원 방화범 무기징역 구형...이사장은 징역 8년

장성 효실전사라나눔요양병원(이하 효사랑병원) 방화 참사와 관련, 방화범으로 지목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병원 이사장에게도 병원 인력·환자 관리 등을 소홀하게 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들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3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존 건조물방화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1)씨에 대해 “수십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냈고 한번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과 치료감호를 구형(求刑)했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요양병원 이사장 이모(54)씨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씨

에 대해 징역 8년을,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56)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하는 한편, 관리과장(43)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월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아울러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이씨가 운영하는 다른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과 치료감호를 구형(求刑)했다.

검사는 논고를 통해 “이 이사장의 경우 화재 참사의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는

실질 운영자이면서도 병원 환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효과적 화재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환자 인력·관리에 소홀, 화재 재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화범으로 지목된 김씨는 “(불이 난) 3층은 어떻게 생각지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변호인도 “CC-TV 영상만으로 김씨가 방화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병원 이사장도 범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했고 광주시 서기관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뇌물이 아닌 벌린 돈으로 이사장에게 빌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김지율기자 dok2000@

“상가 소음에 공부 방해” 빨난 고시원생들 집단민원

전남대 후문 인근 고시원생들이 뿔뿔

나오는 음악 소리와 취객들의 고성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며 집단민원을 낸 것이다.

3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용봉동 A고시촌 등에 사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54명은 지난달 22일 인근 상가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구청 앞에 학원과 고시원이 밀집해 있고 수많은 고시원생들이 살고 있다”며 “고시원 주변에 일반음식점 등이 있는데, 한밤 중에 취객들의 소란 등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공부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많은 신경이 쓰임은 물론 고통스러운 정도”라며 “해당 음식점에 출입문을 닫고 영업을 해 달라고 수 차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심야(밤 10시~새벽 3시)에 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 가게 앞에 의자·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는 가게에 대해선 관련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땐 해당 음식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형기자 golee@

동거녀 폭행 도주...결국 철창행



○동거녀의 수입에 의존해 살던 30대 남성이 동거녀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뒤 잠적했지만 경찰의 집요한 추적에 철창신세.

○3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정모(37)씨는 지난 9월 26일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A(여·52)씨의 집에서 동거녀를 휘둘러 A씨의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등 폭행을 일삼다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것이다.

○정씨는 도망 다니면서도 “죽여버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A씨를 협박했는데, 경찰은 2개월에 걸친 추적 과정에서 정씨의 차량이 순천 터미널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8시간 동안 잠복한 끝에 검거.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부동산 경매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협의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투자자 모집

- 1억원 이상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전각 4거리 운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
4층-35평, 주택
- 시세 및 감정가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대출 3억5천만원 가, 보 2억에 월270만원 포함)
- 엘리베이터, 대형주차장, 텃밭, 전체울수리
- 공인 중개사 공동 중개 환영
- 주인 직매 HP. 010-3605-5000

- 29평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울수리
시 세-1억원 정도
매매가-70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오피스텔 매매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형-20층
사무실 전용
창가코너,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용도로 전체 울수리
룸 2개 사무실 1개
시 세-3억5000만원
매매가-2억7000만원

문의 HP. 010-3180-8900